

“화장품에 AI를 더하다” 민·관 협력으로 K-뷰티 ‘뷰티테크 대전환’ 본격화

- 1분기 1.7% 성장·수출 세계 5위 등 경제 반등 속 K-뷰티 역대 최대 수출 달성
- 역동적 산업 생태계와 세계적 기술력 결합, AI 기반 ‘뷰티테크’로 글로벌 시장 선도 추진

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월28일(목) 16시,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재정경제부, 보건복지부, 중소벤처기업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국내 주요 뷰티기업 및 혁신 스타트업 대표들*이 참석한 가운데 「K-뷰티 테크기업 간담회」를 주재했다.

<참석기업 개요>

기업명	설립연도	사업분야	뷰티테크 제품 및 서비스
(주)아모레퍼시픽	1945년	스킨 사이언스 AI 기반 뷰티·웰니스	◆ 차세대 전자피부 플랫폼(Skinsight) 및 워너-뷰티 AI 등(7년 연속 CES 수상)
(주)LG생활건강	2001년	화장품, 생활용품, 음료 제조판매	◆ 더마쎬라, 임프린투(IMPRINTU), 하이퍼 리쥬버네이팅 아이 패치(CES 2026 수상)
한국콜마(주)	1990년	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(ODM)	◆ 두피 카이옴(CAIOME), 스카 뷰티디바이스 (Scar Beauty Device)(CES 2026 최고혁신상)
(주)룰루랩	2017년	AI 피부분석	◆ Luskin X: 3D 기반 정밀 피부 분석 솔루션 ◆ LUMINI: 2D 기반 비대면 피부 분석 솔루션
(주)릴리커버	2016년	진단 및 즉석 조제	◆ 물리 및 에니마: AI 진단 및 온사이트 즉석 조제 관리
(주)피키글로벌	2023년	AI 퍼스널 컬러 진단	◆ 미니피키: AI 피부톤 분석 및 맞춤형 제품 추천

우리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올해 1분기 1.7% 성장, 수출 세계 5위 달성 등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다. 특히 K-뷰티는 올해 1분기 31억불의 역대 최대 수출*을 기록하며 우리 수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. 지난해 화장품 수출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를 달성한 데 이어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다.

* (연도별 1분기 수출액, 불) ('24) 23억→ ('25) 26억→ ('26) 31억 ('26.4, 식약처 통계)
('25년 국별 화장품 수출, 불) 1위 프랑스(243억), **2위 한국(114억)**, 3위 미국(108억)

구윤철 부총리는 우수한 제조·생산 역량과 약 3만개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로 구성된 역동적인 산업 생태계, 그리고 2년 연속 세계 가전 전시회(CES) 최우수 혁신상* 수상으로 입증된 세계적 기술력을 언급하며, K-뷰티가 AI 기반 '뷰티테크 산업'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.

[CES 2025 및 2026 최우수혁신상 현황]

구분	제품명(기업)	주요 기술특징	영역
CES 2025	마이크로 LED 뷰티 미러 (삼성전자)	30초 내 AI 피부 정밀분석 및 80% 이상 고반사율 미러 구현	뷰티+웰니스
CES 2026	스카 뷰티 디바이스 (한국콜마)	12가지 상처 분류 및 180색 피부톤 맞춤 커버(진단~치료 10분)	의료+뷰티

간담회 참석기업들은 K-뷰티 생태계의 강점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뷰티 테크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△ 뷰티테크 신산업 관련 규제 명확화, △ 뷰티테크 전용 펀드 조성 및 스마트팩토리 등 제조 인프라 지원, △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, △ AI 피부 데이터 뱅크 구축 등을 건의하였다.

정부는 K-뷰티가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계 1등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초혁신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. 이를 위해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&D 투자 확대, 뷰티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, 글로벌 K-뷰티 관광·수출 허브 조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.

구윤철 부총리는 “K-뷰티는 이제 화장품 산업을 넘어 AI와 데이터, 디바이스가 융합된 미래 전략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다”고 강조하며, “대한민국이 만들고 세계가 따라오는 K-뷰티의 새로운 시대를 민관이 함께 열어가겠다”고 밝혔다.

재정경제부	초혁신경제추진단 미래산업과	책임자	과 장 장혜정 (044-215-8880)
		담당자	사무관 권용희 (kyh75@korea.kr)

